

세상읽기



'외국인' 노동자 그들은 누구인가?

정운식

부산 지역인 노동자 연권을 위한 모임 편집국장

그들을 이주 노동자라 부르자

여기서 말하는 이주노동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일컫는다. 이제부터는 이 사람들을 '이주노동자'라고 하자. 잘못 지어진 이름을 고쳐서 부를 때,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낯익다는 생각이 드는 법이다. 이것은 '근로자'라고 불리던 우리들의 이름을 '노동자'라고 고쳐서 부를 때와 비슷하다. 우리 사회에서 근로자나 노동자나 하는 일은 똑같다. 그러나 남의 눈치를 보며 일을 해야 하는, 자본가들이 붙여준 이름인 근로자와 이 세상을 스스로 건설하는 주역인 노동자라는 말이 가진 의미는 다른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은 외국인 노동자이지만, 이주 노동자라고 하는 것이 옳다. 물론 우리나라의 이주 노동자들은 모두 외국인들이니, 그들을 외국인 노동자라 해서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그들을 외국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와 국적이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하는 말이다. 다시 말해, 이 말은 국적에 의한 차별을 전제로 한 명칭인 것이다.

자본은 국적을 차별하지 않는다. 그들은 가장 값싸고 질 좋은 노동력을 쓰고 싶어한다. 노동 또한 국적을 구분하지 않는다. 그들은 가장 노동조건이 좋은 곳에서 일하고자 한다.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이주 노동인 것이다. 노동이라는 행위는 세상의 누가 하든지 그 가치가 다르게 평가받아서는 안된다. 외국인 노동자는 16세기 이후, 서구 열강들이 자신들과 피착취민족을 차별했던 개념과 같은 의미를 지닌 말이다.

이주 노동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 나라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들은 아시아 지도에 그려진 거의 모든 나라에서 온다. 아프리카의 가나나 나이지리아, 남미의 페루 등에서 온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코리언 드림을 안고 한국에 온다. 그들은 한국에서 가장 더럽고 힘든 일에 종사하지만, 고향에 돌아갈 때 한몫 잡아 가겠다는 꿈에 가득 차있다. 그들은 어찌 보면 우리나라에서 고생하기를 작정하고 온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들은 힘겹고 오랜 시간의 일에 대해서는 크게 불만이 없다. 오히려 그들을 냉대하는 분위기를 싫어한다.

이주 노동자들을 생각하면, 사람들은 대개 산재를 당하거나 임금을 체불 당하여 낙담한 모습을 먼저 떠올릴 것이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다. 그러나 모두가 늘 풀죽어 지내지는 않는다. 그 사람들이나 우리들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 그들도 즐거울 때는 웃고, 성나면 화를 낸다. 그들 가운데는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다. 마치 우

리 주변의 보통 사람들이 대부분 선량하고 극히 일부 나쁜 사람들이 있는 것과 같다. 그들도 우리처럼 친구를 사귀고 싶어한다. 문제는 한국이라는 곳이 너무나 낯설다는 것이다. 여러분이 먼저 손을 내밀면 누구나 환영할 것이다.

여러분을 위안시키기 위해서 드릴 말씀은 그들 모두가 심각한 인권유린과 냉대에 시달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많은 회사들이 그들의 탈출을 막기 위해서 외출의 자유조차도 주지 않고, 음식이나 종교, 관습 같은 것도 고려하지 않는 등 여전히 따뜻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쇠사슬에 묶여서 일을 한다든지 하는 일은 거의 없다. 내가 보기에는 그들에게 가해지는 폭력은 직장에서 이뤄지는 것보다는 국가나 중소기업중앙회와 같은 거대한 기구나 조직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훨씬 더 심각하다.

그들을 가까이 지켜본 입장에서는 출입국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태도는 고쳐야 할 것 같다. 그들은 마치 건물거리는 양반이 자기 하인을 부리듯이 불법 체류자들을 안하무인격으로 다루는데, 마냥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이들은 우선 그 앞에서 굶질거리지만, 이것은 한국에 대한 나쁜 인상으로 남을 것이다. 이런 냉대를 받고 출국한 불법 체류자가 작년에만 10만 명이다. 다시 말해, 아시아에서만 1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국의 마지막 인상을 좋지 않게 간직하고 있다는 것이다.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연수생 제도

그들의 대부분은 한국에서 일하기 위해 본국의 일선업자들에게 상당한 돈을 지불하고 온다. 많게는 천만원까지도 되지만, 평균 삼사백만원씩 낸다. 이들은 한국에서 돈을 벌어서 그 비용을 하루 빨리 갚아

이런 냉대를 받고 출국한 불법체류자가 작년에만 10만 명이다. 다시 말해, 아시아에서만 1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국의 마지막 인상을 좋지 않게 간직하고 있다는 것이다.

야 하는데, 문제는 한국에서의 임금이 그들이 애초에 예상한 것보다는 낮다는 것이다. 이 사람들의 도입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중기협)가 독점한다. 이렇게 해서 들어온 사람들을 산업연수생이라고 하는데(줄여서 연수생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부르는 것은 그들에게 전면적인 노동권을 부여하지 않기 위해서이다(연수생은 학생이므로!).

이 사람들은 근로기준법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8개 항목만 적용 받는다. 어쨌든, 이 사람들은 중기협에 의해서 산하 업체로 배치된다. 각 회사에서는 최저 임금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로 주는데, 월 평균 수입은 40만원 정도이다. 잔업이나 철야 수당 등으로 수입을 보충하여 최저임금보다는 많이 받는다. 문제는 이 돈을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각 업체에서는 연수생들의 탈출을 막기 위해서 월 15만원 정도를 공제하여 강제 저축을 시킨다. 회사에서는 그렇게 하면 공제된 금액이 아까워서 도망을 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탈출을 부추긴다. 그들은 절반 가까이 떼인 그 돈으로는 한국에 오느라고 빌린 돈을 1년 내내 일용 해도 갚을 수가 없다. 그러나, 혹시 애초의 직장을 이탈하더라도 귀국할 때 강제 저축된 그 돈은 돌려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일단 한 번 도망을 가서 다른 회사에서 일하게 되면 사정은 달라진다. 먼저 임금이 대폭 상승한다. 우리 나라 노동자들의 80퍼센트 정도인 월 평균 80만원 내외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이 다치면 산재보험에도 적용되고, 근로 기준법도 적용된다. 이 사람들을 원하는 회사도 많다. 신문 방송에는 날마다 중소기업이 어렵다고 하지만, 실제로 외국인들을 원할 만큼 사정이 어려운 회사들은 소기업이다. 종업원을 10명 이하로 고용한 회사들이 훨씬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소기업연합회라는 단체에서는 산업



지금 우리 나라에는 15만 명 정도의 외국인들이 일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 밀항자는 통계에 잡히지 않으므로 정확한 숫자는 아무도 모른다 - 절반 정도가 비등록 노동자들이다.

연수생 제도를 폐지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래서 대부분의 연수생들은 탈출해서 비등록 이주 노동자가 되는 것을 택한다. (비등록 이주 노동자라는 말은 불법 체류자를 일컫는 것이다. 종종 불법 노동자 등으로 부르는데, 이것도 정확한 용어는 아니다. 노동 자체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불법일 수가 없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 나라에는 15만 명 정도의 외국인들이 일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 밀항자는 통계에 잡히지 않으므로 정확한 숫자는 아무도 모른다 - 절반 정도가 비등록 노동자들이다. 이 숫자도 작년 초의 25만 명 가운데 18만 명이 비등록이었던데 비하면 훨씬 줄어든 것이다.

비등록 노동자가 된 이후에는, 잡히지만 않으면 한국에 얼마든지 눌러 앉을 수 있다. 문제는 직장잡는 것과 송금문제인데, 이 수요에 부응해서 송금이나 구직, 밀항 파우를 알아주는 브로커들도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주 노동자들을 위한 단체는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외노협)이다. 외노협 산하에는 전국에 30여 이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상담단체들이 있다.

그들과 함께 하는 조직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주 노동자들을 위한 단체는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외노협)이다. 외노협 산하에는 전국에 30여 이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상담단체들이 있다. 그 상담단체들을 살펴보면, 두 곳이 순수하게 노동운동과 관련된 단체이고, 한 곳은 불교에서 운영하며, 나머지는 모두 카톨릭과 기독교 계통이다. 외노협에 속하지 않은 상담단체들도 많이 있다. 쫓겨온 이들이 다니는 성당에는 독자적인 조직들이 있다. 개신교 교회들은 별도로 '외국인근로자선교협의회'를 구성했다. 기독교장로회 계통의 교회들은 최근에 별도의 협의체를 만들었다.

외노협에 속한 개신교 교회들은 대부분 민중교회들이다. 80년대 우리나라 노동운동에 뒷받침이 되었던 그 교회들이 지금은 이주 노동자들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성남의 주민교회나 안산의 형제교회 같은 곳에는 일요일마다 수백 명의 외국인들이 찾아온다. 안산에서는 97년에 방글라데시 인들로 구성된 방글라데시이주노동자센터를 만들었다. 같은 이름의 센터가 작년에 방글라데시에도 세워졌는데, 이 사람들이 한국에서 귀환한 이후의 대책도 같이 마련하고 있다.

국내의 이주 노동자들의 독자적인 조직인 '재한국제이주노동자조직 (IMOK)'도 작년 초 준비단계에서나마 선을 보였다. 이주 노동자들이 스스로 조직을 건설하는 것은 좋지만, 현실적으로 그들이 공개적으로 활동하거나 발언하기는 사실상 힘들다. 따라서 국내 노동운동이나 시민운동의 지원 없이 활동한다는 것은 현재로써는 거의 힘든 실정이다.

이주 노동자와 노동조합

우리 노동자들에게 물어 보면 대부분이 이주 노동자들은 한국 노동자들의 밥그릇을 뺏어 가는 사람이라고 답한다. 그들이 한국인보다 돈을 적게 받는데 대해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적용되어야한다고 외치지만, 바로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에게 당신과 같은 보수를 지급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생각해 보자.

먼저, 우리 나라도 이제는 이주 노동자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단순 노동에 의존하는 업종에서는 공장 문을 닫든지, 회사를 해외로 이전하지 않고 국내 노동자만으로는 유지가 불가능하다. 임금 격차는 고사하고 우선 일을 하려는 사람이 없다.

홍콩의 예를 들어보자. 홍콩에는 등록 이주 노동자가 40만명 있다. 그러나 비등록 노동자는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리고 등록 노동자들은 모두 최저 임금의 적용을 받는다. 바로 홍콩노총에서 요구하기 때문이다. 홍콩노총은 이들의 노동 조건이 악화되거나, 저임금을 감수하게 되면 자신들의 노동조건도 동반 하락할 것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주 노동자들의 문제를 더 이상 덮어둘 사정은 아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이들이 노조에 가입해서 문제가 있으면 같이 풀어 나가는 것이다. 이들의 불평등을 묵인하는 것은 평등한 노동권을 지향하는 노동운동이 같은 노동자끼리의 불평등을 용인하는 것과 같다. 일본에서는 지역노조들이 비등록 이주 노동자들을 조합원으로 가입시키고 있다. 일단 노조에 가입하면 가장 기본적인 권리는 보장받을 수 있다.

외국인노동자 보호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

이주 노동자들의 문제를 더 이상 덮어둘 사정은 아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이들이 노조에 가입해서 문제가 있으면
같이 풀어 나가는 것이다. 이들의 불평등을 묵인하는 것은 평등한
노동권을 지향하는 노동운동이 같은 노동자끼리의 불평등을
용인하는 것과 같다.

다. 어쩌면 지금은 이주 노동자 정책을 입안할 절호의 기회일 수도
있다. 아마 앞으로 일년 정도가 지나면 십만 명 이상의 새로운 비동
록 이주 노동자들이 다시 한국에 찾아올 것이다. 그리고 유럽 선진국
의 예를 보면, 우리 나라에도 언젠가는 백만명의 이주 노동자들이 일
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이주 노동자의 숫자가 가장 적은 때이다. 그
리고 비등록 이주 노동자의 비율도 적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부담이 적다. 지금까지 이주 노동자 정책이 혼선을 겪었던 것은
그들이 우리 나라에 너무나 갑자기 들어왔기 때문이기도 하다. 앞으
로 이들을 막으려 해도, 노동력의 수요가 있는 이상 막을 수도 없다.
대원군식 쇄국정책을 편다면 모를까?

이주 노동자 문제는 위에 든 것 외에도, 유엔협약 비준문제, 결혼
문제, 고용허가에 대한 문제 등 풀어야 할 수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
다. 그 문제를 그들이 불러온 이후에 다시 해결할 것인가?

은 나라가 구조 조정에 나선 지금, 이주 노동자에 대한 정책도 다
시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바로 지금, 지금이야말로 진지하게 검
토해 볼 시기인 것이다. 물론 노동 운동 진영도 이 문제를 영원히 미
뤄둘 수는 없다. ❖